

# 속절없는 풍랑... 해양호 선원 수색 난항

실종자 6명 생존 가능시간대 '골든타임' 지나  
해경, 오늘 무인탐사기 투입... 기상 호전 기대

지난 4일 발생한 307해양호 화재 침몰사고의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해 해경이 이틀째 밤낮 없이 수색을 펼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 새벽부터 5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항공·해상 수색을 펼치고 있지만 실종된 선원 6명을 찾지 못했다. 해경은 307해양호 사고 지점으로 부터 동서 방향 27km, 남북 방향 37km의 해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눈 뒤 합정 8척, 민간어선 28척, 관광선 5

척 등 모두 48척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실종 선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야간 수색에서 항공기 4대를 동원해 조명탄 300발을 투하할 계획이었지만 사고 해역에 구름이 낮게 깔리는 바람에 항공기 시야 확보가 안됐고 파도까지 높게 일어 전날 오후 7시쯤 2발만 투하한 채 더 이상 조명탄을 쓰지 못했다. 당초 야간 수색에 동원하기로 했던 해군 합정 2척과 민간 어선 18척도 같은 이

유로 투입되지 않았다. 사고 해역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날이 밝은 뒤에 또 계속 유지됐다. 수색에 차질을 빚는 사이 실종자 구조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지나 버리고 말았다. 전날 해경은 사고 해역 수온을 토대로 실종자의 생존가능 시간을 최대 34시간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5일 오후 1시까지가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다. 수중 수색은 이르면 6일 오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탑재한 해군의 청해진함 사고 해역에 도착했지만 파도가 2.5m 높이로 높게 일어 ROV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ROV는 파고가 2m 이내 일때 운용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ROV는 기상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6일) 오전부터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307해양호는 지난 4일 오전 2시30분을 전후해 제주도 남동쪽 74km 해상에서 화재 침몰사고를 당했다. 불이 날 당시 307해양호에는 한국인 선원 3명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5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중 선장 김모(59)씨와 갑판장 김모(47)씨가 구조되고 나머지 6명이 실종됐다. 307해양호는 갈치잡이 어선으로 지난 2일 오전 4시 38분 성산포항에서 출항했으며 선원들이 조업을 마치고 잠을 자는 사이 불이 나 피해가 컸다. 이상민기자

## 제주에서 코로나19 안전한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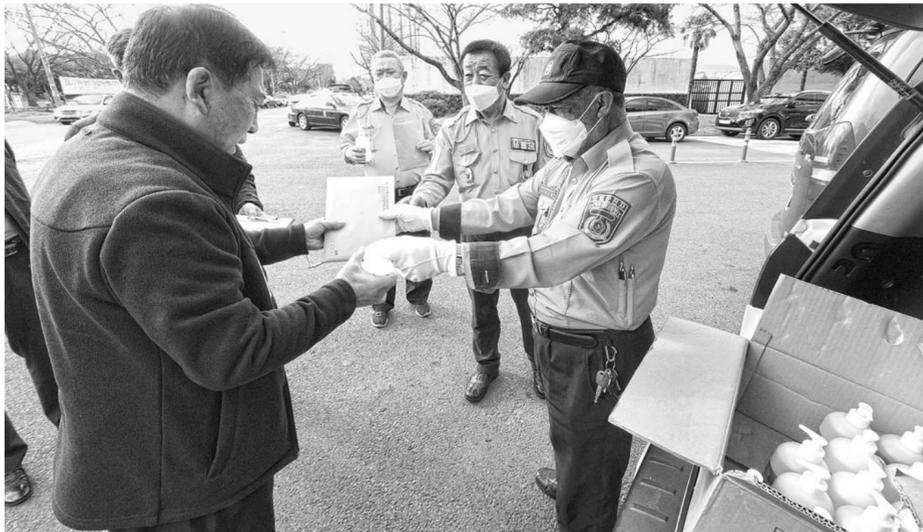
도, 안심존 지도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정지역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제주 코로나19 안심존' 지도 서비스(<https://gis.jeju.go.kr/crn/index.do>)를 5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장소 등에 대한 방역 정보를 제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안심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제주도가 방역소독을 실시한 주소와 소독일, 소독주기 등의 현황을 제공한다. 또한 보건

소와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시설의 위치 정보와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민과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복지시설, 문화관광체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소독 정보도 담겨져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 서비스를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도민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 나눔과 배려의 만덕 정신을 계승하는 '만덕정신 인증마크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천주교제주교구 미사 중단 오는 14일까지 1주일 연장

천주교제주교구(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미사 중지 기간을 오는 14일 까지 연장했다. 천주교제주교구는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통해 "미사와 회합 중지 기간을 3월 14일 저녁 미사 전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고 3월 7일로 예정된 토요 신심미사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주교구는 "이 기간 동안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는 중단하지만 신부님들은 본당에서 수도자, 직원과 함께 미사를 거행하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제주교구는 3월 8일 강우일 주교가 집전하는 주일 미사 동영상상 교구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코로나19, 꼭 극복합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모범안전자연합회제주도지부가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손소독제와 감염예방수칙 홍보지를 나눠주고 있다.

## ■ 제주도감사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 "고가 의료장비 구입하고도 활용 못해"

18건 행정·3명 신분상 조치

서귀포의료원이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의료진 부재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감사가 이뤄진 기간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로, 범위는 서귀포의료원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이다. 감사 결과 18건(시정 3건·주의 7건·권고 2건·통보 5건·모범사례 1건)의 행정상 조치, 3명(훈계 1명·주의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서귀포의료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의료장비 13개 품목(취득금액 20억원 상당)을 대상으로 2018년 연간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활용실적이 낮았던 의료장비는 9개품목(취득금액 12억원 상당)으로 전체 의료장비의 69%를 차지했다. 특히 활용실적이 낮은 의료장비 9개품목 중 2개품목은 의료진 부재와 지역내 재활병원과 기능중복 등의 이유로 2018년 연간 단 한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의료원 장비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장비에 대해서도 관리전환이나 매각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한편 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서귀포의료원이 서귀포시 지역의 열악한 분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모범사례로 꼽았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대학가 대구·경북출신 학생 관리 '비상'

4일 기준 전체학생 30%인 109명 입도... 대학별 2주간 모니터링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을 방문했던 도민과 입도객에 대한 협조 요청과 긴급 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도내 대학가에서도 대구·경북지역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도내 4개 대학 대구·경북 지역 학

생(휴학생 포함)은 제주대 292명, 제주국제대 29명, 제주한라대 30명, 제주관광대 20명 등 371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개강을 앞두고 입도한 학생은 4일 기준으로 109명(제주대 88, 제주국제대 12, 제주한라대 5, 제주관광대 4)으로 파악됐다. 각 대학에서는 이들 학생에 대해

학교 차량을 이용, 공항에서 학교로 학생을 수송하고 2주간 자율 관리와 하루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동의할 경우엔 자율 관리 기간에 기숙사 등 별도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4일 현재 2주가 경과하지 않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입도 학생은 32

명에 이른다. 앞서 도내 대학들은 제주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도 임시생활시설 등을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도내 4개 대학 중국 유학생은 총 902명으로 4일 기준 입도 유학생은 제주대 223명, 제주국제대 18명, 제주한라대 48명, 제주관광대 12명 등 30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2주 미경과자는 제주대 62명, 제주국제대 8명, 제주한라대 9명, 제주관광대 3명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인터넷 마스크판매 사기 30대 구속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A(31)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마스크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9명의 피해자로부터 10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월 초부터 중순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3건 36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감골모독

- \* 유라실생 .....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 1년생, 2,3년생
- \* 천혜향 (무독) ..... 2,3년생
- \* 궁천 .....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 1,2년생
- \* 하례조생 .....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중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아고 있는 일

-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 제주도정 소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월요일간민원실 업무 집중 중단 안내  
중단기간: 2020. 3.9(월) - 상황 종료(안정) 시까지  
문의: 자치행정과 ☎710-2173

임산부 건강을 지키고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자 모집

- 사업내용: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제안되어 선정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서와 임신 또는 출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검증하여 대상자로 선정
-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 임산부는 공급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여 12개월 동안 48만원 이내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액의 20%는 자부담(48만원인 경우 96천원)으로 결제

문의: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62